

## 공개기구 및 단과대 학생회 선거 시작돼

### “등록금 심의 위해 올해 안으로 학생회 건설돼야”

공개기구와 각 단과대 학생회가 2012년 학생회 건설을 위해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지난 8일 총학생회, 야간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의 후보등록 공고를 냈다. 중선관위는 오는 17일 오후 9시까지 후보등록을 받는다. 후보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입후보자 등록원서 ▲회원 5% 이상의 추천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투·개표인 참관인 명단 ▲공탁금 5만원 ▲사퇴서(입후보자가 현재 학생회 및 공개기구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선거본부위원장 명단 외 기타 중선관위가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해 중선관위에게 접수하면 된다.

후보자 자격 요건으로는 총학생회장·부학생회장, 야간총학생회장·부학생회장 및 총여학생회장은 4학기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며 각 회원 5% 이상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총대의원회 의장은 6학기 이상, 부의장은 4학기 이상 등록을 필요로 한다. 학생복지위원회와 졸업준비위원회



▲ 올해 3월 29일 탐구관 앞에서 학생들이 공개기구 및 단과대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다.

정·부위원장은 4학기 이상의 등록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총대의원회·졸업준비위원회·학생복지위원회 후보는 대의원 5%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모든 공개기구 후보자는 전체 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후보는 18일부터 28일까지 선거유세를 할 수 있다.

한편 단과대도 학생회 선거를 시작했다. 인문대 학생회 후보 등록기간은

지난 11일까지였지만 등록을 한 후보가 없어 인문대 선관위 측은 재등록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과 학대 선관위는 지난 1일 이미 후보등록 공고를 냈지만 선관위가 재구성되면서 선거일정을 재조정 중에 있다.

예술대 학생회 선거에는 정학생회장 후보에 김창희(애니제품 3)·부학생회장에는 이이람(인테리어 3) 학생이 단선으로 출마했다. 이 선거운동본부

의 주 공약은 △실습비 지원 요구 △예대 프리마켓 확대이다. 김창희 정학생회장 후보는 “학생들이 학교를 편하게 다니길 바란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모든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과대 학생회 선거도 무산됐다. 후보 등록기간인 지난 11일까지 등록을 한 후보가 없어서 내년 3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공개기구와 예술대학생회 선거는 오는 29-30일 양일간 이뤄진다. 옥형빈(의예 4)예술대 학생회장은 “중선관위와 단선관위가 따로 구성되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예술대와 공개기구 선거 투표소를 하나로 묶어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영준(의예 4) 중선관위원장은 “올해에는 학생총회가 열리는 등 큰 일이 많았다. 곧 등록금심의도 시작하는 만큼,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11월 선거가 꼭 성사되어야 한다. 투표율로 학생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당선자가 빨리 나와서 등록금 인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학생들의 투표를 독려했다.

한편, 지난 9월 21일 1차 대의원총회에서 선거 시행 세칙이 개정되었다. 학교 밖 홍보물 부착을 ‘호산나 및 한아름’ 아래로 금지하는 세칙이 ‘윤가네 및 한아름’으로 변경되었다. 중선관위 구성인원은 20인 이내에서 30인까지로 늘어났으며 투표장소는 최대 4곳까지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이 6곳으로 확대되었다.

오지영 기자 guiyomee@hansung.ac.kr

### 삼 학 승

#### 무관심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비아하로 선거철이다.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꾸러졌고, 후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공개기구 및 학생회 선거기간이 되면 선뜻 후보로 나서는 이가 없어 후보등록기간이 연장되거나 다음 해로 보궐되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 해당 공개기구 없이 연간 행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총여학생회(이하 총여)는 몇 년째 후보가 나오지 않아 총여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졌고, 몇몇 학생들은 우리학교에 총여라는 공개기구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비단 총여의 문제만은 아니다. 올해는 야간총학생회가 꾸러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야간총학생회가 없어 한 해를 보내야 했던 해도 있었다.

공개기구가 잘 꾸러져야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고, 교내 각종 행사들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례로 타대학에서는 총여가 활발히 활동해 생리공결제를 이루어내기도 했다.

공개기구 후보가 나오지 않아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점도 아쉽지만, 후보가 나온 경우에도 투표율이 낮아 선거가 부결되거나, 보궐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크나큰 문제이다.

2008년 24대 총학생회 선거 때는 6천703명 중 3천475명이 투표에 참여해 51.84%라는 투표율을 겨우 과반수를 넘겼고, 2009년 25대 총학생회 선거 때는 6천177명 중 1천893명이 투표해 30.64%의 투표율로 선거가 부결되기도 했다. 보궐선거로 다시 치러진 선거에서는 6천699명 중 3천380명이 참여해 50.45%로 총학생회가 꾸러지지는 했지만, 이 또한 과반수를 겨우 넘긴 수치이다. 2010학년도 26대 총학생회 선거 때도 6천127명 중 2천466명이 투표해 40.25%로 부결되었다.

본 지에서 작년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로 ‘관심이 없어서’(57.5%), ‘후보·공약을 몰라서’(27.8%) 등의 대답들이 다수였다. 숭실대와 숙명여대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 및 모바일 투표를 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학교에서는 2007년 23대 총학생회 선거 때 다소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학생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선관위가 투표하는 학생들에게 핸드크림을 나누어주는 등의 노력을 하기도 했다.

지금쯤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학생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인재를 필요로 하고, 어떤 공개기구가 어떤 사업들로 학생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중선관위는 선거가 부결되어 후보자들의 노력이 빛이 바라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가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김하늘 편집국장

## “사회과학대 학생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지난 8-11일 우촌관과 진리관 사이(이하 우진사에서) 사회과학대(이하 사과대) 학생회 ‘만문’이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할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사과대 학생회는 지난 학기에도 사업공청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들과 학생회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고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졌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지난번 공청회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참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병석(경제 3)사과대 학생회장은 “이번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 형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병석 사과대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우진사에서 조사를 했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사탕을 나누주는 행사도 벌였다.”고 이번 조사가 이뤄진 방식을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실시했던 사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사업’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또 ‘다음 학생회에서 꼭 했으면 하는 사업’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강병석 사과대 학생회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단순히 이번 학생회만을 위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다음 학생회를 위한 조사이기도 하다. 이번 15대 사과대 학생회가 내건 공약 중에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진행 방향을 고쳐야 할 것들도 있다. 이번 측면에서 이번 설문조사가 다음 사과대 학생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15일에는 2학기 사업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다. 오후 2시에 창의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이날 사업공청회에서는 설문조사의 내용 뿐 아니라, 올해 사과대 학생회가 사용한 모든 예산 내역도 공개된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문서화해서 공청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해 사과대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시간도 가지게 된다.

이번 학기에 실시한 사업공청회와 설문조사들에 대해 강병석 사과대 학생회장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생회들은 자체적인 평가만 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신뢰를 잃고 다음 학생회에 공약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번 설문조사나 사업공청회 등이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 예대 졸업작품전시회 개최

지난 4일 무용학과 졸업발표회를 시작으로 예대 각 전공(일부 전공 제외)의 졸업작품전시회(이하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대부분의 전공은 11월 중에 전시회를 개최하지만 패션디자인전공은 9월에, 의류패션산업전공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전시회를 치렀다. 시각영상디자인전공은 1월 중에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다.

무용학과는 지난 4일 서초구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졸업발표회를 치렀다. 졸업작품은 공연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총 4편의 오디션을 거친 작품들이었다. 이에진(무용 4)학생은 “일 년간 했던 노력과 고생들이 공연 한 번으로 끝나서 시원스럽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논문 발표로는 한지원(무용 4)학생의 ‘무용전공생의 진로와 관련된 선행연구 비교분석’이 있었다.

중앙화과는 지난 7-11일에 연구관 A&D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전통적인 동양화 작품도 있었지만 현대적인 작품도 많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박미수(회화 4)학생은 졸업예정자 중 유일하게 설치작품 <아빠금지>를 전시하기도 했다. 그는 “동성애자, 성폭력 피해자, 성소수자 관련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고 싶어 <아빠금지>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제작 취지를 밝혔다.

인테리어디자인전공은 강남구 푸르지오밸리에서 ‘ENT’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진행 중이다. 총 25명의 졸업생이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 전시는 18일까지 계속된다.


이 밖에 11월 중에 연구관 A&D갤러리에서 ▲서양화과(14-18일) ▲애니메이션전공(21-23일)등이 전시회를 갖는다.

시각영상디자인전공은 11월 중에 과제전이 있으며, 이 과제전은 12-16일에 연구관 지하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휘연 기자 celreich@hansung.ac.kr

2 한 눈에 보는 학과별 선거

4 "우리는 낙오자 아닌 거부자"



대학 못가면 인간도 아냐


3 대학생이 식비부담에 대처하는 방법

7 동네 서점의 진화하는 모습 '뱅크북스'

### 지면안내

### 학생회 소식


사과대 학생회 : 15일 오후 2시 창의관 소강당 사업공청회  
공과대 학생회 : 기말고사 기간 선프인쇄소 운영



기 표 소

이 투표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한성대학교의 미래를 바꿀 지표입니다



투표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 2012년 학과 학생회 건설 순조로울 듯

대부분의 학과가 2012학년도 학생회 선거를 11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 인문대

▲한국어문학부는 '혜음'이 당선으로 출마했다. 정학생회장 후보로 박선민(한국어문 3) 학생, 부학생회장 후보로 정어진(한국어문 2)·김지산(한국어문 1) 학생이 입후보했다. 이들은 △스터디 장려 △학회실 내 소 리합 설치 △소모임 활성화 △학회실 환경개선 △선후배간 화합도모 등 5 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박선민 후보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한국어문학부 학우들을 위한 학생회가 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유세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선거는 16~17일 양일간 치러진다.

▲영어영문학부는 두 개의 선거본부(이하 선본)가 등록했다. 이민기(영어영문 3) 후보가 정학생회장으로 나온 선본은 이강희(영어영문 2) 부학생 회장 후보와 함께 △학구적인 학과 분위기 조성 △학우 간 교류 증진 △ 봉사활동 지원 △전공도서 보상공대 등 4개의 공약을 내걸었다. 한편, 심광보(영어영문 2) 정학생회장 후보와 정승원(영어영문 2) 부학생회장 후보는 △중고도서 커넥터 △탐구관 책상 교체 △시험기간 간식배부 △전공도 서 제본을 약속했다. 투표는 오는 23~24일 진행된다.

▲역사문화학부는 정학생회장에게 임정빈(역사 3)·부학생회장에게 이정현(역사 1), 안정균(역사 1) 학생이 '비상'이라는 이름으로 출마했다. 비상은 △학회실 환경개선 △소모임 개편 및 활성화 △집행부 평가제 실시 △학구 적인 학부 분위기 정착 △선후배간 교

류 활성화 △대의원 역할 강화 등 6가지 공약을 걸었다. 임정빈 후보는 "우 리는 올해 '혁신'을 넘어 '비상'을 꿈 꾸고 있다. 학우들을 웃게 만드는 학 생회가 되겠다."고 선거에 입하는 각 오를 전했다. 유세기간은 14일까지이며 선거는 16~17일 양일간 진행된다.

▲지식정보학부는 지난 9~10일, 재적인원 312명 중 172명이 투표해 투표율 55.1%를 기록했다. 투표 결과, 찬성 153표(89%), 반대 16표(9%), 무효 3표(2%)로 정학생회장에게 이시연(지정 3)·부학생회장에게 정주용(지정 1), 김다혜(지정 1) 학생이 당선됐다. 선본 '고함소리'는 공약으로 △학 회실 개선 △MT비 지원 △시험기간 간식 배부를 약속했다. 이들은 "뽕아 준 학우들에게 감사하다. 한 해 동안 책임지고 임무를 잘 수행하겠다."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 사회과학대

▲경영학부는 정학생회장에는 변기웅(경영 3) 후보, 부학생회장에게 정재환(경영 1) 후보가 찬성 307표(85.9%), 반대 34표(9.5%), 무효 16표(4.4%)로 당선됐다. 지난 8~9일 투표 를 완료한 결과, 총 재적인원 676명 중 357명이 투표해 52.8%의 투표율 을 기록했다. 이들은 'of 경영, by 경 영, for 경영'을 모토로 △학회실 개선 △경영인만의 행사 공모 및 추진 등 의 공약을 걸었다. 변기웅 당선자는 "추운 날씨에 선분이 고생이 많았다. 내년,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학 생회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당선소 감을 밝혔다.

▲무역학과는 지난 9~10일 투표를 실시해 재적인원 402명 중 205명이

투표해 투표율 51%를 달성했다. 투 표 결과 찬성 179표(87.32%), 반대 26 표(12.68%), 무효 6표로 정학생회장 에 정준혁(무역 2)·부학생회장에게 박성준(무역 1) 후보가 당선됐다. 이들 은 △선후배 교류 기회 제공 △스터 디그룹 활성화 △과실 재정부 △멘토 링 시스템의 공약을 내세웠으며, "공 약을 지킬 수 있도록 내년에 최선을 다 하겠다. 다 같이 멋진 무역학과를 만들자."고 소감을 전했다.

▲경제학과는 지난 13일 후보자 등 록을 마감했다. 자세한 사항은 후보 등록이 있을 경우 추후에 공지된다.

▲행정학과는 정학생회장에게 최보민(행정 4)·부학생회장에게 사민장(행 정 1), 박재형(행정 1) 학생이 단독출 마했다. 이들은 △이벤트 및 사업진 행평가 조사 △제천 종무별 MVP 선 정 △행사 후 장부와 통장내역 공개 △과실 환경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을 약속했다. 최보민 후보는 "우 리는 강압적이지 않은 학생회를 지향한 다.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학과 분위 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선거는 오 는 17~18일 양일간 이뤄진다.

▲부동산학과는 지난 11일 선거유 세를 마쳤다. 정학생회장에게 진기혁 (부동산 2)·부학생회장에게 윤정훈(부 동산 1) 학생이 당선으로 출마했다. 이들은 △유대감 형성 위한 행사 추 진 △과실환경개선 △소모임 활성화 지원의 공약을 걸었다. 진기혁 후보 는 "부동산학과 학우들이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앞으로도 화목한 학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투표는 오는 17 일 하루만 진행된다.

### 예술대

▲패션디자인학과는 지난 10~11 일 투표를 마쳤다. 재적인원 309명 중 173명이 투표했으며 투표율은 55.9% 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학생회장에게 광은(패디 2)·부학생회장에게 류다예(패디 1), 김민지(패디 1) 후보가 찬성 161표(93%), 반대 8표(4.62%), 무효 4 표로 당선됐다. 이들은 △허례허식 철폐 △효율적인 예산 운용 △화목한 학 과 분위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회화과는 이달 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직 정해 지지 않았다.

▲시각영상디자인학과는 두 개의 선본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학생 회장에 손수환(휴학)·부학생회장에게 백민희(시각영상 2) 학생이 출마한 선 본과 정학생회장에게 서지희(시각영상 2)·부학생회장에게 조두한(시각영상 2) 학생이 입후보한 선본이 경선을 치 르게 되었다. 지난 11일 치른 투표결 과는 14일에 발표된다.

▲애니메이션학과는 12월 중 에 선거를 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 은 미정이다.

▲이밖에 의류패션산업·무용·인테리 어 학과는 아직 정해진 일정이 없다.

### 공과대

▲멀티미디어공학과는 14~15일 양일간 선거를 치른다. 정학생회장 에 김성재(멀티 3)·부학생회장에게 최서 윤(멀티 1) 후보는 △학생회실 개선 △학과 바람막이 설치 △학과 행사 추진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들은 "과 내 화합에 힘써 선후배간 교류를 증 진시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컴퓨터공학과는 출마의사를 밝

힌 후보가 없어 내년 3월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정보통신공학과는 정학생회장 에 이종혁(정보 1)·부학생회장에게 이동현(정보 1) 학생이 출마했다. 이들 은 △학생회실 개선 △학과행사 활 성화 △타과와의 교류 증진 △소모임 활성화 등을 약속했으며 "당선이 된다면 선후배간 화합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오는 15일 유세기간이 끝나 며 16~17일 양일간 투표를 한다.

▲정보시스템공학과는 정학생회 장에 김지남(정보 2)·부학생회장에게 마동현(정보 1) 학생이 단독출마했다. 공약은 아직 미정이며 이들은 "멘토 제도 강화, 마니포 신설 등의 계획으 로 가족같은 학과 분위기를 조성하겠 다"고 포부를 밝혔다. 투표는 오는 17~18일 실시된다.

▲산악경영공학과는 오는 15일 후 보등록과 선거유세를 동시에 마감한 다. 정학생회장에게 박소라(산공 2)·부 학생회장에게 이영철(산공 1) 학생이 출 마의사를 밝혔다. 이들의 공약은 △학 회실 분위기 △타과와의 교류 증진 △ 소모임 지원 등이다. 박소라 후보는 "첫 여성 학생회장을 꿈꾸고 있다. 공 약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 다. 선거는 오는 16~17일에 진행된다.

▲기계시스템공학과는 14~15일 선거를 할 예정이다. 단독출마한 정 학생회장 김민준(기계 1)·부학생회 장 홍성훈(기계 1) 후보는 △공과관 6 층 정수기 설치 △선후배간 교류 증 진 등을 약속했다. 이들은 "화합하는 학과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출마하 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지영 기자 guiyong@hansung.ac.kr  
이희병 기자 cellreich@hansung.ac.kr

## 간주린소식

### 제4회 오피니언리더 특강 개최

한성브랜드 구축을 위한 제4회 오피니언리더 특강이 지난 2일 미래관 지하 DLC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강연은 '종이책에서 전자책까지 - 세상을 만드는 책 만들기' 라는 제목으로, 강연자로는 김중수(한울출판사대표)가 초청되었다. 김대표는 'Gutenberg 2.0' 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등장할 e-북(전자책)과 출판 시장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김중수 대표는 "책은 없어지지 않는 시장이다. 더군다나 미래 사회는 지식정보사회인데, 이러한 사회에서 책을 기반으로 한 지식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매머드급 기업들이 e-북 산업에 뛰어드는 이유"라고 언급하며 출판시장의 미래를 논했다. 강연에 참석한 박상일(영어영문 4)학생은 "오늘 특강을 듣고 나서 출판계와 e-북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다. 또 최근의 출판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도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 결승을 앞둔 낙산체전

오는 16일까지 낙산체전이 열린다. 종목은 축구, 농구, 족구, 발야구, 피구 등 5종목이며, 총 23팀이 참여했다. 대부분의 종목은 운동장에서 경기가 진행되었으 며, 농구 경기 중 일부는 낙산관 3층 실내 체육관에서 치러졌다. 이번 낙산체전에는 ROTC도 한 팀을 이루어 출전했다. 대부분 각 학과 단위로 출전했지만, 예 대는 축구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 단과대 단위로 '예술대 연합' 팀으로 경기에 참여했다.

홍성훈(기계 1)총학생회 사무국장은 "원래 낙산체전 일정은 1~8일이었다. 그런데 수능, 소방훈련, 우천 등으로 일정이 조금씩 지연되었다. 각 종목의 4강전이 11일부터 치러졌고, 14~16일에는 각 종목의 결승전이 있을 예정"이라며 지연 이유와 그에 따라 변경된 진행 일정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이번 낙산체전에는 기권한 팀도 있었고, 아무 설명 없이 경기에 불참한 팀도 있었다"며 아쉬웠던 점을 밝혔다.

### 영상작품의 향연이 될 방송제 개최

오는 18일 미래관 지하 DLC에서 제24회 한성대 방송제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방송제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한성사랑영상공모전으로 지난 6일까지 접수받은 작품들을 상영하며 2부에서는 방송국에서 제작한 영상을 상영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이번 방송제에는 오디오 방송 1편과 영상 2편이 방영된다. 오디오 방송 <인연>은 생방송 형식으로 진행된다. 영상 2편은 보도영상 'Human Thinking'과 제작 영상 'Change'가 상영된다.

임정현(역사 2)방송국 아나운서부장은 "평소 방송국은 오디오 프로그램이나 뉴스, 영화 등만 정규방송으로 내보낸다. 하지만 방송제에서는 그동안 틈틈이 준비해온 드라마 등의 작품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 사고와 표현 실전판, 한성인 글쓰기 대회

지난 10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제6회 한성인 글쓰기 대회가 열렸다.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주최한 이번 대회는 "너답게 사고하라! 너를 표현하라!"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사고와 표현 이은희(한국어문학부)위원장은 "학생들은 이 대회를 통해 사고와 표현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는 글쓰기에 대한 실전 경험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며 "글쓰기는 단순히 테크닉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글쓰기 대회를 통해 한성인의 깊이 있는 사고와 창의력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총장실에서 있을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4명이 시상에 참여한다.

### 동정란

**김성동(컴퓨터공학과)교수** 김교수는 지난 11~12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 36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영향 기계번역을 위한 영어 복합 명사 자동수집'(조재호, 김성동 지)이라는 논문으로 우수논문상 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

**정성훈(정보통신공학과)교수** 정교수는 지난 12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정보 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유전자알고리즘에서 여왕벌 진화를 위한 강 돌연변이 비율 및 확률의 자체조정'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금 파’**

지난 4일에 서울 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무용학과 졸업발표회에서 학생이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 취업하면 학점도 해결?

지난 10월 3일 낙산의 메아리에 취업계 제도와 관련된 글이 올라왔다. 취업계 제도가 없어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글을 본 학생들 중 일부는 "졸업을 마치고 취업을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행정적인 받침이 더 필요하다"며 이 글을 올린 학생 의견에 동의했다.

'취업계 제도'란 졸업을 하기 전에 취업을 한 학생은 수업에 빠져도 출석과 기본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있으면 학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편익성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취업계 제도가 몇 가지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취업계 제도 자체를 약용하는 것이다. 2009년에는 '위장 취업계' 문제가 대학 내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취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취업계를 작성해 교수에게 제출하고 자격증이나 고시공부를 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에 한 온라인 취업사이트에서 대학 4학년생 546명을 대상으로 "위장 취업계를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0.8%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실제로 위장 취업계를 제출한 학생은 10.4%에 이르렀다. 취업계 문제 자체가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취업계 제도를 제도화 시키는 것은 대학에서 성적을 매기는 기준에도 위배된다. 이에 대해 조중집(학사지원팀)팀원은 "학생들의 성적을 채점하는 가장 큰 기준은 출석과 시험, 과제이다. 이 세 가지 결과물의 일치도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이 매겨지게 된다. 취업계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이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취업계 제도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한 학교는 없다. 교수와 학생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인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을 규칙으로 정한 학교는 전무한 상황이다. 조중집 팀원은 "학생들이 취업문제에 민감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취업계 같은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또한 취업계 제도를 만드는 것만이 취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교육혁신지원팀이나 세터 면접소 같은 취업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다. 취업창업지원팀에서 마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의 취업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내 인생에 챗터를 하나 더한다는 것 내 인생이 보다 풍부해진다는 것**

당신은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도 있고 지금과는 또 다른 내일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의 경험과 노하우로 당신의 내일은 더욱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마디를 더하는 곳 - 한성대학교 대학원

## 2012학년도 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모집

- 1. 일반대학원(주간)**

**박사과정 (02)760-4271**

  - 한국어문학과 / 국어학, 국문학, 한국어교육, 문화콘텐츠
  - 영어영문학과 / 영문학, 영어학
  - 사회학과 /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 문화정보학과 / 문화정보학
  - 경영학과 / 인사·조직관리, 재무관리, 서비스운영관리, 마케팅, 회계학, 경영정보
  - 행정학과 / 행정학, 정책학
  - 무역학과 / 국제경제, 국제무역, 국제경영학
  - 경제·부동산학과 / 경제학, 부동산경제학, 부동산학
  - 산업경영공학과 / 운영및시스템공학, 경영공학, 생산·품질경영, 안전 및 인간공학
  - 정보컴퓨터공학과 / 멀티미디어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시스템공학
  - 기계시스템공학과 / 산업위생공학
  - 미디어디자인학과 / 시각·영상커뮤니케이션,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 인터랙티브·디자인이론
  -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 매·커뮤니케이션, 컨버전스컨설팅

**석사과정 (02)760-4271**

  - 한국어문학과 / 한국어문학, 문화콘텐츠, 한국어교육
  - 사회학과 /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 영어영문학과 / 영어학, 영어문화콘텐츠학, 영어교육
  - 문화정보학과 / 문화정보학, 기록관리학
  - 무역학과 / 국제경제, 국제무역, 국제무역실무
  - 경영학과 / 인사·조직관리, 재무관리, 서비스운영관리, 마케팅, 회계학, 경영정보
  - 행정학과 / 행정학, 정책학
  - 경제학과 / 경제학, 부동산경제학
  - 산업경영공학과 / 산업경영공학
  - 멀티미디어공학과 / 멀티미디어공학
  - 컴퓨터공학과 / 컴퓨터공학
  - 정보통신공학과 / 정보통신공학
  - 정보시스템공학과 / 정보시스템공학
  - 기계시스템공학과 / 기계시스템공학, 산업위생공학
  - 회화학과 / 동양화와 진채화, 서양화, 복합매체, 사진
  - 의류패션산업학과 / 의류구성 및 디자인, 의류공학, 복식사 및 패션마케팅
  - 무용학과 / 무용공연, 무용이론
  - 미디어디자인학과 /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디자인, 제품디자인
  - 영상커뮤니케이션학과 / 디자인이론
  - 디지털문화기술 & 콘텐츠학과 / 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
  - 뉴미디어광고프로그래밍학과 / 뉴미디어광고프로그래밍
- 2. 특수대학원(야간)**

**경영대학원(석사) (02)760-5844**

경영학과 / 경영관리

호텔관광인사경영학과 / 호텔경영, 관광경영, 인사경영

디지털미디어비즈니스학과 / 디지털미디어비즈니스학

**행정대학원(석사) (02)760-5845**

행정학과 / 행정학, 정책학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노인복지, 사회복지상담

경찰행정학과 / 경찰행정학

미약알콜학과 / 미약정책 및 수사, 중독상담 (02)760-5859

**예술대학원(석사)**

패션디자인학과 / 패션디자인패션마케팅, 패션프로그래밍 (02)760-4037

뷰티예술학과 / 분장예술, 헤어디자인, 뷰티에스테틱, 뷰티세팅 (02)760-5740, 5970

**국립과학대학원(석사) (02)760-4388**

인보전략학과 / 국제인보, 국빙정책, 군사전략

국빙정책학과 / 국빙정책

국빙 M&S학과 / 국빙M&S학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석사) (02)760-5987, 5957**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 매·커뮤니케이션, 컨버전스컨설팅

**부동산대학원(석사) / 부동산투자증권전공, 부동산평가전공**

부동산개발 및 관리전공, 지적 및 토지관리전공, 중수사리전공 (02)760-5876

**교육대학원(석사) / 교육행정전공,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교육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02)760-5878**

**원서접수 및 발표**

- 원서 접수기간: 2011.11.21(월)10:00~11.29(화)17:00
- 접수방법: 대학원홈페이지(http://gs.hansung.ac.kr) 모집요강 확인후, 우편이(http://www.umeyapply.com) 인터넷 접수
- 면접일정: 2011.12.3(토) 10:00 ~ (학과별 변동가능)
- 발표일정: 2011.12.16(금) 14:00 이후 대학원홈페이지(http://gs.hansung.ac.kr) ※가다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136-702 서울시 서부구 상산로 162길 116 http://hansung.ac.kr

# 식비부담에 대학생이 대처하는 법

## 고가의 등록금에 물가 따라 오르는 식비까지... '반값 밥차'로 오세요

높은 등록금에 점점 오르는 식비까지 더해져 부담을 느낀 대학생들이 직접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올 한 해 대학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반값' 이슈가 학생 스스로에 의해 일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다수의 대학생들이 식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취업 인사 포털 인크루트가 대학생 2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생 5명 중 4명 평균 81.3%가 등록금이나 생활비 때문에 식비를 줄여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커피 등의 음료 값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김은정(22, 대학생)씨는 "평소 즐겨 마시는 아메리카노의 원가가 몇 백원에 불과하다는 얘길 듣고 놀란 기억이 있다. 하루에 한 잔만 마셔도 쌓이면 부담된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이 식비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학생식당 및 대학가 식당들의 밥 값이 올라 시내 일반 음식점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대학가 식당의 음식값은 국민대와 성신여대의 경우 3천원 선, 동국대의 경우 평균 3천5백원 선 등이다. 학생식당의 경우 대학가 주변 식당보다는 저렴한 수준이지만 학식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숙명여대 학생식당의 경우, 지난 3년간 200원씩 인상해 특선메뉴 가격이 2천5백원에서 3천1백원으로 올랐다. 우리학교 학생식당의 경우도 올해 운영방식을 기존



카페테리아 형식에서 세트메뉴 형식으로 변경해 평균 식비가 올랐다. 김예슬(대2) 학생은 "밥과 국, 반찬 등을 원하는 것만 선택해 먹을 때는 식비 부담이 확실히 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학생들이 생활비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나선 사례가 눈에 띈다. 숙명여대 총학생회는 10월 중순부터 이 달 초까지 평균 일 점심에 '반값 밥차'를 운영해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밥차에서는 매일 100~300인분의 도시락을 2천원~2천5백원에 판매했다. 숙명여대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학생식당의 외주업체가 학생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거치지 않고 밥 값을 계속 올려 학내에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에 3

천원대를 넘기며 학생식당 가격 인화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커졌다. 9월에 이벤트를 시작으로 처음 진행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총학생회 측은 밥차를 통해 식사 가격 책정 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려대는 '반값 카페'를 열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지난 달 26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 반값 카페와 밥차를 운영했다. 고려대는 대학 내에 입점한 커피 전문점이 모두 14곳이지만 가장 저렴한 아메리카노가 한 잔에 1천9백 원 선으로 덕성여대·서울대·서강대 1천2백원 등에 비해 비싼 편이다. 고려대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카

페를 학내에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커피 가격이 비싸 불만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아메리카노를 직접 만들어 1천원에 판매했는데 많은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고려대 생활협동조합을 추진해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고 말했다. 밥차 역시 반응이 좋아 1시간만에 700인분이 동이 났다.

서울시내 대학뿐 아니라 인천지역에도 비슷한 '반값 생활비' 사례가 있다. 인천지역 대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지협인카드인 '인해피카드'가 그것이다. 인해피카드는 인하대·인천대·경인교대·인하공전 등 4개 대학 학생들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음식점과 커피숍 뿐 아니라 영화관, 축구장 등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으로 가입된 해당 음식점과 커피숍은 5~15%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인천지역 프로축구 팀 인천유나이티드는 인해피카드 회원용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특정 좌석 기준으로 관람료 50%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인천지역 대학생과 객과 'win-win' 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다.

이에 김정연(22, 인천대)씨는 "라식 수술 할인 등의 혜택이 눈에 띈다. 영화나 식당 할인 등은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취재부)

### ■ 타대학 엿보기-서울여대

## 글로벌 여성 리더에 다가서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부는 자신의 전공과 흥미에 대한 것들이지만, 올바른 인성에 대한 공부 역시 게을리할 수 없는 문제다. 이에 서울여대에서는 개교 이래 50년간 이어져 온 바롬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활공동체 중심의 기숙형 인성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다.

원미순(바롬인성교육부)교수는 "바롬인성교육은 1961년 학교 설립과 함께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실천하는 여성지도자', '창의적인 여성 리더 양성' 등을 모토로 시행해왔으며 현재는 '글로벌 여성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바롬인성교육의 변천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바롬인성교육의 전체 교육과정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년별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뤄지며, 대부분 공동체 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 번째 과정은 '나를 깨우는 교육'이다. 이 과정은 1학년 1학기에 이뤄지며 참여하는 학생들은 3주간 바롬인성교육관에 입사한다. 원미순 교수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나와 우리에 대한 이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설계,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과정 등을 통하여 글로벌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우게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과정은 '우리를 깨우는 교육'이다. 이 프로그램은 2학년 2학기에 이뤄지며 첫 번째 과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2주간 바롬인성교육관에 입사한다. 이 과정에서는 '학생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성을 기르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 과정은 '사회를 깨우는 교육'이다. 이 과정에서는 한 학기 동안 TPBL(팀프로젝트 기반학습)수업이

진행된다. 원미순 교수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정에서 했던 교육과 훈련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며, 참여와 실천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앞에서 본 기본 수업 외에도 글로벌 시민 소양 교육과 비전 교육, 공감적 의사소통 교육 등이 추가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글로벌 시민 소양 교육에는 영어 소양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학교생활예절 지도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체적인 교육은 서울여대만의 특화된 영어 몰입형 교육인 스웰(Swell: 외국어교육원)과 협력하여 이뤄진다. 이에 대해 원 교수는 "바롬인성교육의 공동체 교육과 스웰의 영어 몰입교육을 융합한 '바롬-스웰'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외국어 소양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서울여대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학생들의 평가에 대해 원미순 교수는 "현재, 바롬인성교육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며, 개인의 비전을 확인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서울여대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시민소양을 갖춘 인재,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재, 공동체를 화합으로 이끌 수 있는 인재,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인재,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재를 키우고자 한다"며 서울여대의 인재 교육 방침을 밝혔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 ■ 통계로 본 대학사회

## 대학생 32.2%, "팀플, 학습효과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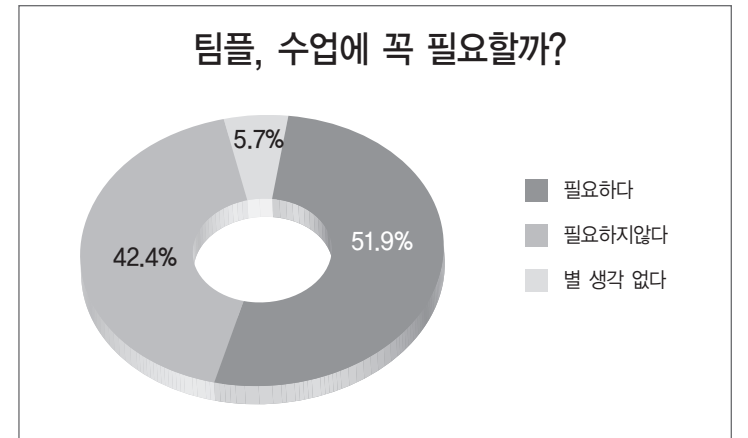
기업들이 팀워크와 화합을 중시하게 되면서, 대학 내에서도 팀별로 과제를 수행하는 일명 팀 프로젝트(이하 팀플)가 늘고 있다. 취업·인사 포털 인크루트가 대학생 323명을 대상으로 '팀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팀플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학생이 전체의 97.2(314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팀플이 개인의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은 결과 '학습 효과가 낮다'(32.2%), '그저 그렇다'(40.4%)라고 답한 학생들이 다수였다. 반면 '학습 효과가 높다'고 답한 학생들은 27.4%에 그쳐 팀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69.3%의 학생들이 학습 효과가 낮은 이유로 '몇몇 팀원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라고 답했고, 10.9%에 이르는 학생들이 '팀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팀원 간의 역할분담이나 소통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다른 이유로는 '조 모임에 회의 목적 외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9.9%), '내가 맡은 부분만 공부하게 돼서'(5.9%), 기타(4.0%) 등이 있었다.

또한, '팀원 간의 의견 조율이 잘 안 되어서 결과물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다'는 이들도 69.1%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에 대해 김 모(경영 3)학생은 "팀플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 큰 도



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무임승차하는 학생들이 있고, 팀 구성 시에 마음 맞는 팀원을 만나는 것 또한 힘들기 때문이다."며 팀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그렇다면 프로젝트에 대한 개인별 기여도는 학점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을까? 팀플 진행 시 각 개인의 기여도가 학점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반영되지 않았다'(55.1%)는 답변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반영됐다'는 응답은 44.9%에 그쳤다. 팀플은 팀 단위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혼자서만 열심히 해서 결국 좋은 학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다.

팀으로 과제 수행을 했을 때와 혼자 과제를 했을 때 학점 차이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혼자 했을 때가 학점이 높았다'(38.2%)는 답변이 '팀플 했을 때가 학점이 높았다'(17.5%)는 답변보다 높았고, '별 차이 없었다'(44.3%)는 학생들도 많았다.

한편, 팀플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 '협업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하다'는 답변이 51.9%로 과반수를 넘어, 절반이 넘는 학생이 팀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혼자 해도 학점에 지장 없으므로 필요하지 않다'(42.4%), '별 생각 없다'(5.7%)로 팀플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많았다.

이에 대해 산업경영공학과 학생은 "지난 학기에는 팀플을 여섯 개나 했다. 팀플이 너무 많아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팀원이 많다면 더 심지어 어떤 과제를 함께하는 팀원인지 헷갈릴 정도였다."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팀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과목도 있다. 팀플을 남용하기 보다는 교과목 특성상 팀플이 꼭 필요한 과목만 했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하늘 기자 bluedreamsz@hansung.ac.kr

## 대학만평

권연화(애니제름 4)



## 졸업앨범 환불신청 안내

- \*1학기에 이미 졸업앨범을 촬영하신 학우분들은 앨범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대상 : 8학기 이상 등록하신분 (4학년 1,2학기 모두 등록하신 분)
- \*일시 : 12월 7일(수) ~ 12월 16일(금) 오전 11시 ~ 오후 7시 (기간외에는 환불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우촌관 3층 무인발급기에서 4학년 1,2학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출력한 후, 학반과 연락처 기입 후 제출

- \*장소 : 창의관 1층 졸업준비위원회 사무실
- \*문의사항 : 졸업준비위원회 사무실 760-4105  
졸업준비위원장 (010-4731-1933)



# “나는 대학을 거부한다”

## 위화감 조성하는 사회 분위기 타파하고 안정적 삶 보장해야

“우리가 대학을 그만두거나 대학에 가지 않은 것은 더 좋은 삶, 나중이 아닌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이 아닌 다른 삶의 길을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학을 거부한 것이지 배움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대학 거부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대학 밖에서의 배움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대학만이 유일한 배움의 길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애써 찾아 배우는 그 과정 뿐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힘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수해야 할 차별과 불이익은 우리를 더욱 막막하게 합니다. 대학에서 벗어난 우리에게 사회는 차별과 배제의 이빨을 들이댑니다.”



— ‘대학입시거부선언문’ 중  
 지난 1일 청계광장에서 ‘대학입시거부부 세상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이 ‘투명가방끈’이 대학거부를 선언했다. 이날 대학거부선언을 위해 모인 30여명의 사람들 중에는 지난 달 서울대를 자퇴해 화제가 된 유윤종씨도 함께했다. 이들은 ‘우리는 나오자 아닌 거부자’라는 제목의 선언문과 함께 ▲졸 세우기식 무한경쟁교육 반대 ▲권위적인 주입식교육 반대 ▲학생인권 보장 ▲교육목표 입시 반대 ▲교육예산 확보 ▲대학에 대한 편견 반대 ▲학벌사회 반대 ▲안정적 사회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8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선언도 준비하고 있다. 투명가방끈 활동에 참여한 파이루(활동명·19씨)는 “지난 해 고등학교를 자퇴했다. 평소 대학을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입시 얘기가 아니면 친구와 나눌 말이 없었다. 모두가 대학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교는 대입을 강요한다. 입시를 치르지 않으면 학교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양성과 자유로움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쏟아지는 차별과 무시가 없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교육은 진정한 의미를 잃었다.”며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대학생은 얼마 없다. 수업과 동아리 등 모든 활동이 취직과 스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자신의 주장을 펼칠 공간도 없다. 마치 취직을 위한 학원 같다. 등록금이 너무 아까웠다.”고 회의감을 나타냈다. 요즘 김씨는 투명가방끈과 뜻을 공유하고 있다. 그녀는 “대학교육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서열화도 문제다. 대학의 이름에 따라 차별이 심하다. 대학에 다닌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이런 보여주기식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퇴를 종용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우리의 대학거부선언으로 자신의 신념에 대해 의문을 한번 가져봤으면 한다.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냉소적이다. 사회는 변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하며 “현재의 대학은 다양한 가치 실현과 거리가 멀다. 사회는 청년이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을 개인의 노력 부족 문제로 치부한다. 우리의 목표는 이것을 사회의 문제라고 인식하게끔 전환시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여자 김서린(25씨)은 졸업을 앞두고 얼마 전 대학교를 그만뒀다. 선배들은 모두 그런 그녀를 만류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졸업장이 부끄럽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녀는 “대학은 다양한 경험의 장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에 대해 김서린씨는 “물론 학교 안에서

한편 지난 12일 투명가방끈은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학거부 거리행동에서 입시철폐와 대학평준화를 주장했다. 파이루씨는 “사람들은 항상 앞만 보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산다. 하지만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할 수 없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 ■ 그린 액티브

##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일자리를 통해 돈보다 희망을 벌자!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직업은 어떤 의미일까? 직업(job)의 사전적 의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하는 일’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경제적 조건, 적성과 능력,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한다. 한편 직업은 한 사람의 자아실현의 과정이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하다. 때문에 누구나 사회적 가치와 자신의 행복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천직(calling)을 꿈꾼다.

평등성이 ‘녹색’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녹색일자리로 이야기할 때, 어디까지를 ‘녹색’일자리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일자리의 질의 문제, 녹색일자리로 대체되면서 사라지는 또 다른 일자리 상실의 문제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올 초 통계청이 내놓은 청년층의 실업률은 9.5%에 달했다.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자란 이야기이다. 그나마도 직장인의 3분의 1은 비정규직인 시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행복한 직업을 꿈꾸는 일이 사치스럽게 느껴질 지경이다. 최근 내가 만났던 대학생들은 하고 싶은 일, 자신의 미래를 나눌 때 대기업 사원, 공무원, 연구원... 그 이상의 다양한 꿈이나 패기가 좀처럼 비쳐지지 않았다. 실업률의 수치보다도 더 이상 천직을 꿈꾸기엔 버거운 현실에서의 패배감이 더 안타깝다.

녹색일자리로의 전환은 분명히 우리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 정책에서 말하는 녹색일지리는 에너지 고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산업 공간의 녹색화, 환경보호나 자원순환, 저탄소 경제활동 분야에 해당한다.

그런데 최근 환경위기가 심화되고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녹색일자리’가 주목받고 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잿빛일자리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일자리로의 전환은 우리 시대의 당연한 요구이다. 미국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시절 ‘그린칼라 직업 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우리 정부도 녹색성장이라는 기치아래 ‘녹색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과 경제를 생각한다는 녹색성장 정책이 그 실행 과정에서 환경, 경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회 정의적인 측면이 배제되는 사례가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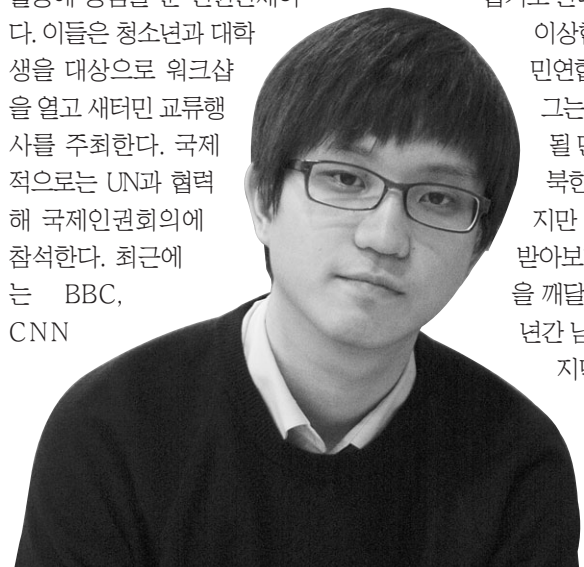
직업은 모든 인간이 평생에 걸쳐 갖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답을 찾는 것에서 출발한다. 여럿이 함께 지속 가능하고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획박한 현실도 바꿀 수 있다. 상상하고 도전하자. 누구에게나 희망을 버는 행복한 일자리 ‘천직’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글·정미정(사원교육센터 연구실장)

### 세상 속 우리

## ‘북한인권시민연합’ 인턴 이상협씨를 만나다

### 다수의 관심이 북한주민을 구할 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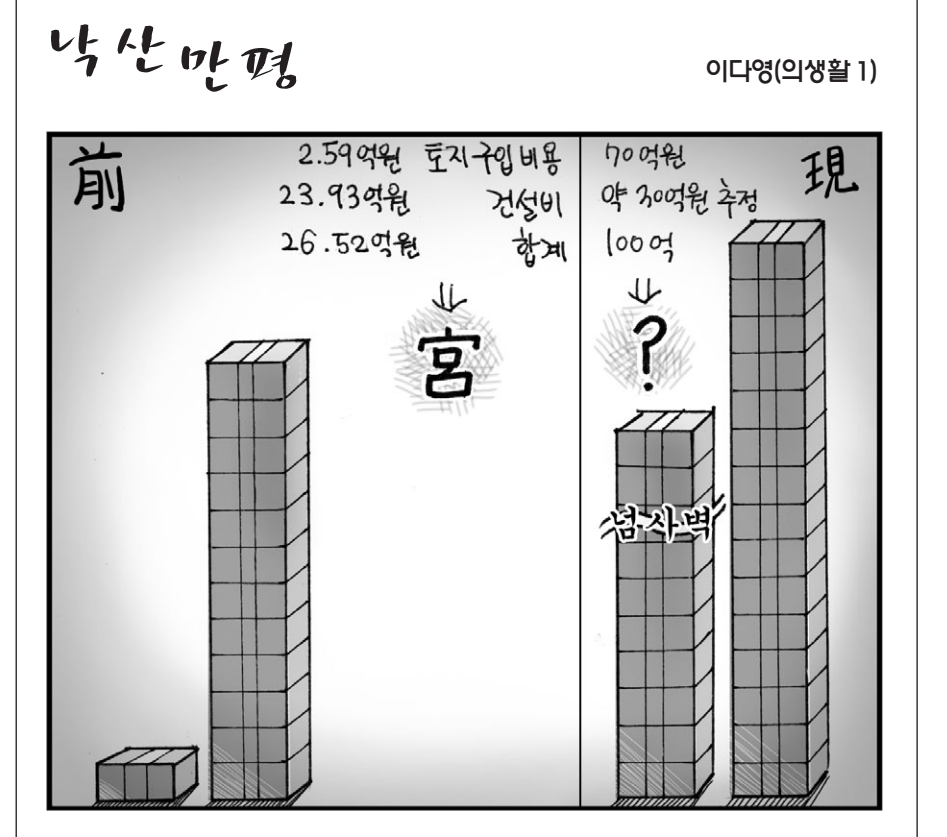
북한과 관련해 통일이나 안보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단체는 많다. 하지만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에 중점을 둔 인권단체이다. 이들은 청소년과 대학생 대상으 워크숍을 열고 새터민 교류행사를 주최한다. 국제적으로는 UN과 협력해 국제인권회의에 참석한다. 최근에는 BBC, CNN



등의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현장에서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돕기도 한다. 이상협(고려대 법학과)씨는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3개월째 인턴활동 중이다. 그는 “고등학교 때 대입전형에 도움이 될 만한 이력을 만들기 위해 지인에게 북한인권시민연합을 소개받았다. 하지만 회원이 되고 난 뒤 정소식지를 받아보며 북한의 현실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지난 50년간 남한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다. 하지만 바로 옆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인권유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마치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다.”고 말했다. 이상협씨는 이곳에서 쌓은 경험과 현장체험을 토대로 인권

문제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변호사를 꿈꾼다. 그는 “앞으로 남·북한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새터민에게 우리나라는 외국이나 마찬가지로 낮은 공간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다. 때문에 새터민들과 남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며 “헌법상 북한은 우리나라의 일부인데, 우리가 북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에 앞서 주민들을 보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북한에서 남한의 TV프로그램을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포당의 미움을 받거나 가족 중에 탈북자가 있더라도 하면 정치적 수용소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다. 이상협씨는 “북한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질서나 법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실질적

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설명한다. 다만 그는 “때가 되면 무언가 행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는 시민단체에 가입하거나 북한의 실상을 널리 퍼뜨리는 일 등으로 실천할 수 있다. 개인은 무력하지만 단체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 북한의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올릴 수 있다. 사회가 이러한 현실을 깨달으면 북한에 국제적인 압력을 넣을 수 있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덧붙여 “학교, 직장 같은 순간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좀 더 멀리 내다보길 바란다.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간 사람도 많은 돈을 지불하면 풀려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곳에 억류된 사람 수십만 명을 구하기 위해 들어가는 뇌물과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 세상이 있다! 꿈이 있다!

## 제4회 한성대 영상제가 개최됩니다

(구. 한성대 동영상문화제)

**일시:** 2011년 11월 19일 토요일 오후3시  
**장소:** 미래관 지하D.L.C  
**주최:** 한성대학교 교양학부

선·후배, 친구들이 만든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영상! 매년 열기와 수준이 높아지는 한성대 영상제!!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기념품을, 방청객 중 행운의 10분에게는 무심한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화정



계희원 교수 (정보시스템공학과)

개강이 다가오자 한 젊은 교수가 권위 있는 노교수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는 강의가 어렵습니다." 노교수가 답했다. "나는 지금도 어렵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야기는 필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강의는 어렵다. 기대에 비해 실제 강의가 만족스럽지 않아 걱정이 된다. 매 시간이 끝나면 진도는 적절했는지, 설명은 잘 되었는지 모르겠다. 현재 강의가 큰 문제없이 꾸러지기는 하지만, 매번 강의에 의욕이 있으니 강의는 어렵고, 두렵다. 기대를 낮추면 강의가 행복하겠지만, 이 행복은 학생의 행복이 아닌 강사만의 행복이라, 학생 성공 교육 대신 '정신 승리'를 달성하게 된다.

강의에는 선택이 필요하다. 학생과 강사가 만족할 내용, 분위기,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애매하다. 누군가 정해주었으면 하지만 그럴 사람은 없다.

강의 내용을 작년과 변화를 줄 것인가? 세상의 진리가 금방 바뀔 리가 없으니, 큰 개편

이 없는 대부분의 강의 내용은 작년과 같다. "그래도 부분적인 변화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으로, 강의 순서를 바꿔보기도 하고 예시 자료에 변화를 주기도 하는데 반응은 별 차이가 없다. 열심히 고친 강의의 자료가 제작년의 강의 자료와 비슷해지는 경우도 생긴다.

강의 스타일의 경우, 진지하게 하면 지루해 하는 학생이 생기고, 농담이 많아지면 시간 낭비라고 느끼며, 다양하게 시도하면 산만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적당한 정도를 찾아야 하는데, 같은 이야기를 A반에서는 재미있게 B반에서는 시큰둥하게 듣는 것을 보면 답이 없는 문제인가도 싶다.

강의 수준도 너무 낮으면 학생들이 따분해하고, 너무 높으면 신경을 끄게 된다. 그런데 학생들의 사전 지식이 매년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지해 내는 것은 어렵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데, 학생들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모른다'는 사실을 듣고 싶지 않다는

복잡한 표정 (-\_-)'을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되고, 결과는 공학 시험이 문학 답안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강의는 교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움직여야 하는 즉흥극 연기의 느낌이 난다. 예민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냉담한 관객 반응을 얻는다. 이런 과정은 매년 반복되고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된다.

부임 초기에, 담당하고 있는 2학년 과목의 많은 학생이 1학년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당시 1학년 과정 복습을 병행하느라 힘이 들었지만, 학기를 마치고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에 보람도 있고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다음 해의 학기 초가 되자 같은 상황이 생겼고, 혼란스러웠다. 매년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앞선 어려움들의 공통적인 해결 방안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학생 반응, 피드백이었다. 좋은 강의를 위해 어

떤 방향으로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니, 강의의 어려움이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런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서로 노력이 필요하다.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려는 선생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발전적인 태도로 피드백을 제공하려는 학생 노력도 중요하다. 만약 학점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강의평가의 주관식 문항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기를 권장한다.

물론 피드백 결과가 학생 개인을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지난 수업의 피드백에서 실습 비중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비슷한 숫자로 이론 비중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경우 이론, 실습 비율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실습과제의 양을 약간 늘릴 계획인데, 과제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나올지도 봐야겠다. 다만, 이 기고문으로 인해 내년 강의가 정원 미달로 폐강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설| 대학인들에게 거는 기대

아직 넘겨야 할 달력 한 장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 해를 돌아본다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올해는 '일 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그런 시간이었다.

올 한 해, 아니 요즘의 상황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혼동이다. 일본 대지진이나 태국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나 기상 이변은 차지한다 하더라도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 그 중 많은 것들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 일어난 일들 중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서울 시민은 한 해 동안 무려 두 차례의 선거를 치렀다. 반값 등록금 논쟁은 대학가를 넘어 정치권과 국민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지만 아직 그 뚜렷한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찬바람이 불면서부터 시작된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는 우리 경제의 미래 상에 대한 수많은 논점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을 넘어서 세간의 집중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 방식은 더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 입장을 달리 하는 양 측에서는 더 이상 상대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논리만 앞세운 채 서로를 공격한다. 체면이나 상대에 대한 배려 같은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고,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도 찾아볼 수 없다. 논리를 벗어난 채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험한

말이 오가고, 그 과정에서 사건의 핵심은 점점 파악하기 힘들어진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상황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는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에도 자기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 통신 매체가 주요 소통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접하는 정보 자체가 한 방향으로 편중되게 되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에 대해서 한 쪽 입장을 대변하는 견해들이 발달한 통신 기술의 힘을 빌려 순식간에 우리를 에워싸면서, 다른 견해는 접할 기회도 갖지 못하곤 한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현대 과학의 위대한 성과이고, 이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저 수단일 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용하는 우리들의 태도다. 이 사회의 젊은 지식인으로서 우리는 주어진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발달한 매체를 통해 하나의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접한 후 자신의 시각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자세, 나와 다른 견해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다. 우리사회가 혼동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학인들의 이런 태도가 절실하다.

기자수첩

'총회 세대'가 해야 할 일

요즘 탐구관을 지날 때마다 "투표하세요!"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강의를 듣다보니 강의 선전활동을 하는 후보들의 모습도 보인다. 이미 여러 학생회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학생회 임원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학생들의 한 표가 절실한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가운데 현재 학생회는 어느 때보다 들떠있다. 학생총회 성사로 인해 학생회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총회를 겪은 학생들에 대한 학생회의 기대는 상당히 크다. 이미 학생회 안에서는 이 학생들을 '총회 세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학생총회에 참여해 총회가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본, 앞으로 제2, 제3의 학생총회를 이어나갈 학생들이다.

일단 총회 세대들에게 당면한 과제는 이번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다. 작년 말에 있었던 선거는 악몽이었다. 투표율의 저조로 공개기구와 단과대 선거가 대부분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후보자 등록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4월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뼈아픈 과거를 알고 있는 학생회 임원들에게 이번 선거는 아주 중요한 자점이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

과제가 더 남아있다. 그것은 올해를 보낸 학생들의 활동들을 면밀하게 평가해보는 것이다. 올해 학생회는 많은 일들을 이뤄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었다. 학생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을 뿐 아니라, MBC와 함께 하는 대중제를 기획해 우리학교를 외부에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해 학생회가 추진한 사업들이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잘못된 예산의 사용이나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재 등 반성해야 할 부분과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었다. 학생들 역시 성과에 치우치지 말고 학생회 활동의 득과 실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또한 학생회에서는 향후에 학생들이 학생회의 행보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최근 사과대 학생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문조사 사업이나 사업공청회 등은 이번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아직은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총회 세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올해는 일이 많은 해였다. 벌여놓은 것이 많으니, 그것을 살피는 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총회 세대가 이러한 자신들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종민 기자 jpmgm@hansung.ac.kr

기자가 만난 사람

태권도 동아리 한얼, 전국에서 인정받기까지

김지인(무역 3)한얼 회장을 만나다

한국의 대표 무술인 태권도를 아끼고 좋아하여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리학교 태권도 동아리 한얼이다. 김지인(무역 3)한얼 회장을 만나 한얼만의 태권도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난 5~6일, 한얼은 등대문구 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대학태권도동아리대회에서 은메

달 2개를 수상했고 여자 단체부 경기에서 3위를 차지했다. 은메달을 획득한 영예의 주인공은 김지인 회장과 박준범(정통졸업생)이었다. 김지인 회장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 보람이 있었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노력의 결과로 상을 탄 것은 기쁘지만 학교에서 수상의 진가를 잘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아

쉽기도 하다. 이번 수상이 동아리 평가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며 학교 측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했다.

한얼은 매년 전국대학태권도동아리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김지인 회장은 "우리는 거의 일 년 내내 11월 대회에 집중하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 저녁 시간에 체육분과실로 모여 연습한다. 그럴 때면 훈련부장의 역할이 커진다. 지금은 훈련부장 두 명이 연습 때마다 회원들을 가르친다"며 운동일정을 소개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습을 거쳐 출전하게 되는 11월 대회는 어떻게, 김지인 회장은 "사실 매년 참가할 때마다 분위기는 비슷하다. 올해 같은 경우 경희대에서 주최했고, 참가한 동아리 중 한얼은 규모가 작은 편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기량을 다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대회 이전에는 연습뿐 아니라 컨디션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며 대회 참여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타대학 태권도 동아리 사이에서도 자신있게 버티는 한얼이지만, 그들에게는 고충도 많았다. 체육분과실 이용과 관련한 어려움, 학교의 대회 지원 소홀로 인한 어려움 등이 그것이었다. 김지인 회장은 "현재 체육분과실을 일주일에 2회 이용하고 있는데 타대학 체육동아리는 매일 연습을 할 수 있게 지원

을 받는다. 2주 운동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연습하기 힘들다. 체육분과실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려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동아리 회장으로서의 바람을 전했다.

한얼은 전국대회뿐 아니라 학내 태권도 시범, 대학간 교류에도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김지인 회장은 "우리는 현무제를 비롯한 교내 행사뿐 아니라 타대학간의 교류전에도 참가해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다. 교류전에서의 경기 경험은 전국대회 때 경기를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평소 동아리 생활은 어떻게, 김지인 회장은 한얼은 다른 체육분과 동아리에 비해 선후배 사이가 부드럽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동아리는 타대학 태권도 동아리와 달리 선후배 간의 분위기가 대단히 편하다. 타대학 태권도 동아리의 경우 기수나 학번에 따라 엄격한 분위기로 운영되는데 한얼은 그렇지 않다"며 한얼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는 "태권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태권도 단수 올리는 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는 동아리가 한얼이다. 연습할 때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연습할 수 있어서 좋다"며 한얼만의 장점을 꼽았다.

이휘넌 기자 celreich@hansung.ac.kr

가로세로

Grid for the crossword puzzle with numbered squares.

정답자 발표
최해성(경영 1) 010-XXXX-7342
손다원(무역 2) 010-XXXX-1427
이현정(무역 2) 010-XXXX-6171
학과(학년):
이름:
연락처:

가로 세로

- 1) 바닷물이 높아져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현상
2) 인종을 달리 이르는 말, 숨이 끊어질 때의 모진 고통
3) 추위나 냉각으로 얼어붙음, 사업, 계획, 활동 따위가 중단됨
4) 어떠한 사업에 대해 일의 관리자에게 의견을 들어 보는 공개적인 모임
5) 속담: ○○○도 밥으로 꿈틀한다.
6) 일례에 있는 사회적 규범이나 대다수의 의견 등에 개인의 의견이나 행동을 동화시키는 경향
7) 지형에서 암석이 고온으로 가열되어 융용된 것

- 1)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일 처리가 능숙한 사람
2)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대중음악가, 대표작 《Like a Virgin》
3) 맑고 푸른 하늘
4)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5)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한 학생은 수업에 빠져도 출석과 기본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6) 동네서점 (영스북스)가 있는 동
7) 시름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뒷사람을 농락하고 권세를 함부로 부리는 것을 비유한 말

정답자에 한해 추천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지난해 정답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문의: 한성대신문사(02-760-4186)

한줄댓글

Q. 공개기구·학생회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공약은?
- 많은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강연이 듣고 싶어요
- 한성대 학생들은 주차비를 내지 않게 해주세요, 주간 5천원 아간 3천원은 너무 셉니다.
- 동아리연합회에서 체육분과 동아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육분과실 같은 곳을 한두 군데 더 확보해주세요.
- 20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 등록금
- 서울시 일자리 확보 전략
- 생각을 싣짜우는 인문, 사회과학 관련 강연회와 토론회 개최
-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다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원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알게 하라. 보통 학우들은 학생회에 무관심하니까 조금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
- 취업난에 허덕이는 요즘, 청년들의 실업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고용 창출에 힘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총장님과 학생들이 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서로의 의견을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 의생활학부는 실습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등록금으로도 충분히 충당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주머닛돈 대신 등록금이 제 곳에 효율적으로 돌아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최수영(의생활 1)

이번 호 당첨자는 최영균(경제 1), 하지원(의생활 1), 최수영(의생활 1) 학생입니다. 당첨자에게는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문화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모든 한성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한성대신문사에서는 독자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면에 싣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내용이든 신문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신문사로 보내주세요.

- 소재 예시
- 학교에 건의하고 싶은 것
- ○○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우리 동아리를 자랑합니다!'
- '나는 고발한다, ○○○을...'
- 한성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영화, 여행지 등

원고 매수: 200자 원고지 4~5매(A4의 절반 정도)
보내주실 곳: press@hansung.ac.kr
기타 문의: 760-4186, 010-4534-8682

보내주시 글이 채택돼 지면에 실리면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성명, 소속,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성대신문사

# 세상이 점점 더 '애매해지는' 이유

##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와 언어의 양극화 현상

최근 KBS에서 방영되고 있는 개그콘서트의 코너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일명 '애정남' 코너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방송이 사람들에게 회자된 이후 '애정남'은 TV 뉴스나 인터넷 광고 등에서도 계속 등장하고 있고, 지난 10월 22일에 있었던 학생총회에서는 학생회에서 패러디한 '등록금 애정남' 동영상도 상영되기도 했다.



이렇게 애정남이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이슈가 되는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애매한 문제들을 의식스럽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애매한 문제들은 서로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장애를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만든 언어에 뛰어난 논리성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애매함이 발생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요소로 '언어의 양극화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언어의 양극화 현상은 언어로 어떤 대상을 설명할 때 '극단성에 치중하게 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 김정우(한국어문학부)교수는 "언어의 양극화 현상은 어떤 대상을 이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흑백논리의 한 가지 전형으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에 대해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을 규정한다거나 사람을 친구 또는 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결국 양극화 현상은 두 가지에 완벽하게 속하지 않는 중간적인 상황을 두 가지 극점으로만 표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예는 애정남에서도 등장하는데, '화

수준의 복잡성을 수용하며, 그 정도를 넘어서면 상징적 이미지와 같은 단순한 형태로 다시 변하게 된다"고 말한다. 인간이 말을 할 때는 최대한 말을 간소화시켜 경제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언어의 양극화 현상 역시 이런 경제성을 반영하고 있다. 즉, 대상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때문에 언어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인간의 성향은 중간단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없거나, 그 대상을 수치적으로 재는 단위가 없을 때 더욱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길이의 문제를 말할 때는 '몇 센티미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위에서 말한 민낯과 화장한 얼굴의 차이는 어떤 단위나 중간을 표현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언어의 양극화 현상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다.

문제에 가치판단의 문제 역시 언어의 양극화 현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언어의 양극화 현상이 흑백논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가치판단에 흑백논리가 개입되면 대상을 빠르고 경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지만, 대상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김정우 교수는 "흑백논리 때문에 오히려 애매한 것들이 발생한다. 중간 단계를 설정해주는 개념이 없으면 극과 극으로 편이 갈라버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금방 답이 나오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판단에 신뢰를 느끼고 익숙해진다. 하지만 흑백논리가 계속되면 오히려 제대로 된 진실은 볼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jangmin@hansung.ac.kr

### 여인천하

## 욕쟁이 선생님이 알고보니, 고종황제의 밀사

- 최초의 미국대학 졸업자 김하란사(1875~1919) -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김씨 부인은 서울에 이화학당이라는 여학교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한달음에 찾아갔다. 하지만 프라이 교장은 스무 살이 넘는 결혼한 여성을 받아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 전에 배우겠다고 찾아온 부인이 한 달도 못되어 그만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이나 거절당했던 김씨는 이번에는 그냥 물러서지 않았다. 거듭된 요청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하인을 들고 있던 등불을 갑자기 훑고 꺼 버렸다. 순간 주변은 암흑으로 가득 차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리의 캄캄하기가 이 등불 꺼진 것과 같으니 우리에게 학문의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없겠습니까?"

결국 그녀는 입학이 허락되었다. 그가 바로 여성 최초로 미국 대학(오하이오 웨슬리안)에 유학 가서 학위를 받고 돌아온 하란사이다.

이화학당은 1886년 미국인 선교사 스크랜턴이 고아들을 데려다 세운 최초의 여학교이다. 19세기 말 선교사들이 들어와 맨 먼저 구호활동 대상으로 삼았던 대상은 '여자 아이들'이었다. 남양선호 사상이 강했던 풍조 속에서 아들이 아닌, '딸'은 태어날 때부터 가장 천대받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부를 이름이 없었다. 양반 여성들도 이름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세례명이나 서구식 이름을 붙여준 것이 박예스터, 김월렌과 같은 이름들이다. 하란사의 '란사' 역시 낸시(Nancy)의 한자식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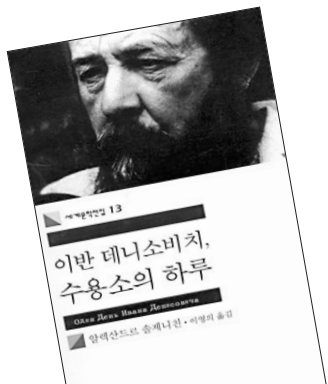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미국식으로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하란사도 남편 하상기의 성을 따랐던 것이다. 인친 별감으로 있었던 하상기는 자신의 후처로 들어온 하란사를 이화학당에 입학시키고 미국 유학 자금을 댈 정도로 외조를 확실히 해주었다.

그는 1906년 대학졸업 후 귀국하여 이화학당의 기숙사 사장이 되는데, 그녀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하인을 들고 있던 등불을 갑자기 훑고 꺼 버렸다. 순간 주변은 암흑으로 가득 차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욕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속임수였을까? 아니면 아이들과의 서먹함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었을까? 엘리트로서 조용히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험난한 삶을 선택한 그녀는 자신뿐 아니라 조선의 어둠까지도 밝히고 싶었는지 모른다. 최성경 · '왕을 낳은 후궁들, 저자'

### 서평-파워블로거의 지식충전, 감성충전

##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수용과 체념이다



박연주 필명 '참술다' 네이버 책 분야 파워블로거 (http://blog.naver.com/golozoo3)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는 홀로코스트 영화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기억된다. 이 영화에서 휴머니즘은 저항에서 나온다. 그것도 격렬한 저항이 아닌 유머라는 온화한 저항에서 우리는 인간미를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사실 그와 같은 장소에서 인간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 『이반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솔제니친 /민음사

그 때문에 귀도의 행동에 감동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화는 엄밀히 말하면 초월과 저항의 영화이다.

솔제니친의 『이반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는 이 영화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영화가 말하는 초월과 저항은 온전히 사라지고, 수용과 체념의 세계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주인공 슈호프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내 잔잔한 웃음을 날린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웃음이 아니다. 때로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날리는 웃음이기도 하고, 여전히 수용소에서 저항하고 인간다운 대우를 요구하는 초짜 죄수에 대한 비웃음이기도 하다.

그런 그의 태도에 간혹 독자들은 답답함과 분노를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체념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인지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참담함을 느낀다.

솔제니친은 책을 통해 서글픈 것은 전제정치의 국가라고 말한다. 인간이 인간다운을 유지할 수 없는 것, 체념하거나 수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 진정한 공포라는 것이다.

요즘은 길 위에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트위터로 말한다. 트위터가 언론이요, 광장이 의회다. 이런 행렬을 보며 나는 내심 아직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수용하거나 체념하는 이 없이 차가운 거리에라도 나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직 대중이 무력하지 않다는 증거요, 아직은 우리의 공포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한성대 학보를 몇 부 받아보았다. 나는 여기에서도 아직은 공포가 미치지 않는 목소리를 알아낸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목소리를 내는 자도 아니요, 길 위의 차가움도 아니다. 오로지 수용과 체념으로 얼룩진 삶이다. 우리는 아직 슈호프가 아니다.

## 별종을 주목해라, 별종이 되어라!



윤종현 필명 '꽃다지' 네이버 책 분야 파워블로거 (http://blog.naver.com/myplanup)

얼마 전 신입사원을 한 명 채용했다.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라 채용 사이트를 이용해 공고를 올렸는데 지원자가 이백 명 가까이 모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더욱 놀랄 일이 있었으니 그 많은 지원자들 중에 내가 원하는 인재들이 보이더라는 사실이다. 기본적인 이력사항과 자기

### 『이상한 놈들이 온다』 /세스 고딘 /21세기북스

소개만을 놓고 비교하는데도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

고만고만한 학력과 이력만을 놓고 보면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지향하는 삶의 방식과 이를 걸음으로 드러내는 표현방식을 비교하면 차이는 극명해진다. 남들 하는 대로 스펙만 갖추어 대중 속에 파묻힌 사람들은 절대 자신만의 개성과 독특함을 보여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세스 고딘이 『이상한 놈들이 온다』에서 예견하는 바와 일치한다. 세스 고딘은 이 책에서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한 '대중'을 제치고 '이상한 놈들', 즉 '별종'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대중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접근이 쉬우며 순응과 생존을 추구하는 대다수를 의미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대중이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집단이 세상을 지배해왔다. 그러나 더 이상 세상은 대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례테일의 법칙에서처럼 수많은 꼬리들이 몸

통보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부를 창출한다.

따라서 별종은 정상이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다. 사실 그가 말한 별종은 마케팅적 관점에서 바라본 개념이다. 그러나 이 별종들은 미래의 사회적 개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별종들은 왜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 인터넷을 통한 기회의 확대와 물질적 여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별종들이 모인 동호회 커뮤니티는 거울이 되거나 증폭기가 되어 개인의 관심사를 더욱 키워주고 더 멀리 나아가도록 돕고 있다.

아직까지는 대중적 관심이 지배적인 것이 맞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이 이상한 놈들, 별종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별종에 주목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반대로 '나는 어떤 별종이 되어야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 글쓰기 상담 신청 안내

2011년도 2학기 한성대학교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에서는 본교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글쓰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 목 적 ◎

1. 면대면 상담을 통한 개별 학습자의 글쓰기 고민 해결
2.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능력과 표현 능력 향상
3. 리포트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 향상
4. 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능력 함양

### 상담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 한성대학교 학부 재학생
2. 상담 기간 : 2011년 9월 5일(월) ~ 2011년 12월 9일(금)
3. 상담 영역 :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서평, 칼럼 등 (논문, 자기소개서 제외)
4. 상담 내용 : 맥락 파악, 주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등
5. 신청 방법 : ①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상담의 메뉴에서 '상담' > '상담신청' 클릭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② 상담 희망 일시 48시간 이전에 신청 (본인의 신청 확인은 MY PAGE)
6. 기타 문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 (연구동 B101, ☎ 02-760-4354)

\* 상담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참고)

###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

# 동네 사랑방 같은 서점 '땡스북스'

지난 11일 아침 사진촬영을 위해 땡스북스가 있는 서교동을 찾았다. 서점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현란한 표지의 책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종업원에게 커피도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었다. 서점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지,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라는 종업원의 말이 낯설게 느껴졌다. 서점의 이런 특이한 모습 뒤에는 땡스북스 창업자이자 디자이너인 이기섭씨와 김옥씨의 노력이 있었다. 김옥 실장은 "땡스북스는 이기섭 대표와 공동으로 쓴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디자이너, 출판을 계기로 책을 판매하는 새로운 공간을 고민하다 기획하게 됐다'며 "다른 서점들과 경쟁하기보다는, 디자이너라는 특성을 살려 '동네 서점'의 새로운 틀 모델로 성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땡스북스를 개점했다"고 땡스북스를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일반 서점에서는 책과 음반 등을 판매하는 것에 주력하지만, 땡스북스에서는 책만 팔지 않고, 동네 서점이라는 역할에 맞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회를 열거나 금주의 책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수첩이나 포스트잇 등 다양한 팬시용품과 책을 읽는 동안 마실 수 있는 음료수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

관심을 갖게 할까 고민하면서 전시를 기획했다. 그리고 회원들이 좋아하는 책을 직접 읽고 금주의 추천책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좋은 책을 알리는 방법도 만들게 되었다."고 두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땡스북스를 찾아오는 손님들은 주민들 뿐 아니라 홍대에서 일하는 직장인, 학생 등 다양하다. 그동안 몇 번의 세미나와 독자와의 만남 등 책과 관련된 행사에 회원들을 초대했는데, 그때마다 참여율이 높았다."며 "이들을 위해 향후에는 책과 관련된 또 다른 세미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동네 서점으로서 그 입지를 굳히고 있지만, 프랜차이즈나 온라인 마켓이 서점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땡스북스 역시 곤욕을 치러야했다. 김옥 실장은 "서점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책을 들여오는 문제였다. 많은 책을 판매하는 대형서점에 비해서 수익이 적은 동네 서점에 책을 입고하려는 출판사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오래 일했던 이기섭 대표의 인맥을 통해 디자인 분야의 책부터 들여왔다. 지금은 많은 출판사와의 관계가 넓어지면서 분야를 늘려가고 있다."며 당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책을 진열해놓은 방식도 특이하지만 구매할 책들을 선정하는 방식도 흥미롭다. 이들은 '겉과 속이 같은 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김옥 실장은 '겉과 속이 같은 책이란 완성도가 있는 내용만큼 완성도 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 책을 말한다. 다시 말해 겉도 예쁘고 속도 알찬 책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책이다. 이 때문에 우리가 들여오는 책 중에는 신간이나 베스트셀러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땡스북스가 동네서점인 만큼 동네 출판사와 같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위의 작은 출판사들의 책을 입고 하기도 한다. 단, 홍대 주위의 독립출판 서적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 서점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독립출판물이나 잡지는 가능한 들이지 않는다는 원칙도 있다."고 책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서점을 이용하다보면 베스트셀러나 프로모션 책들에 현혹되어 정작 읽어야 할 좋은 책들을 놓치는 경우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책에 대한 사람들의 감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땡스북스는 들여온 책을 먼저보고 열어볼 수 있도록 모든 책의 비닐을 뜯어놓고 있다. 고가의 책들도 접착식 봉투로 포장해, 언제든 열어볼 수 있다.

앞으로 땡스북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가게가 가진 장점들을 키워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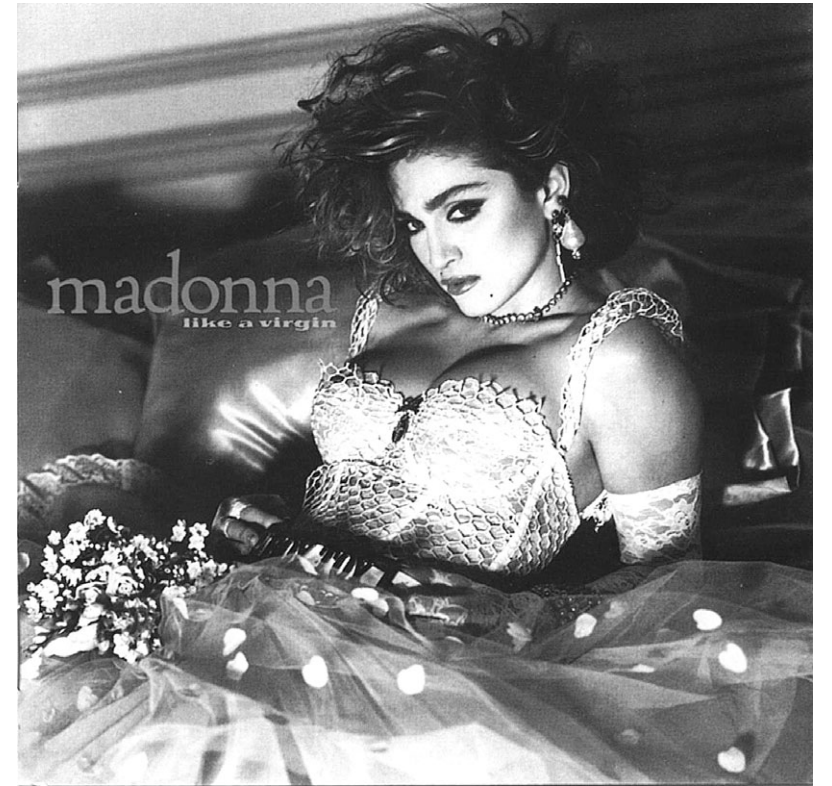
김옥 실장은 "간혹 땡스북스에 처음 오는 손님들 중에 '여긴 어디서 운영하는 건가요?'라고 묻는 손님들이 있다. 그만큼 국내 출판시장에서 프랜차이즈나 기업이 아니면 서점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땡스북스는 아직 시작하지 1년도 되지 않은 작은 동네 서점이다. 어딘가로 넓혀가기 보다 이곳에서 깊이 있는 땡스북스만의 강점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언젠가 땡스북스의 생각을 이해하고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2호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크기를 키우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동네서점이 생길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감대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땡스북스 홈페이지〉  
http://www.thanksbooks.com/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 Diamond Records



### 즐겁고 발칙한 음악 〈Like a Virgin(순수한 처녀처럼)〉

대중적으로 성공한 명반들 중에는 평론가들의 의견과 대중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들이 있다. 마돈나(Madonna)가 1984년에 발표한 〈Like a Virgin(순수한 처녀처럼)〉 역시 그 반응이 매우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대중들에게 '발칙한' 음악은 신선한 자극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평론가들은 단순히 성을 상품화한 멜로디의 집합체 정도로 치부해버렸다.

하지만 대중음악의 평가에 있어서 결정적인 승리의 조건은 대중의 선택이다. 평론가들에게 아무리 질타를 당해도 그 도전 자체가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앨범은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리고 그 앨범의 '발칙한' 방식은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문화가 되기도 한다. 비틀즈(The Beatles)가 만들어낸 브리티시 록의 유행이나, 밥 딜런(Bob Dylan)이 주도한 포크 록 유행 역시 이런 맥락에서 등장할 수 있었다.

결국 이 음반 역시 대중들의 압도적인 지지 덕분에 명반의 반열에 올랐다. 이 앨범이 6주 동안 빌보드 차트를 점령함과 동시에, 잇달아 내놓은 싱글 앨범들까지 모두 성공을 거두면서 마돈나는 자신의 입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론가들에게 질타를 받는 이유 가수가 아니었다. 전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스타가 된 것이다.

〈Like a Virgin〉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음반이 가진 정치적 성향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경박스러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배척하는 한편 남성 우월주의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었다. 마돈나의 눈에 이런 것들은 파괴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그는 대중음악이

가진 파괴력이 보수적인 사회 풍토에 통렬한 일침을 날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실행에 옮겼다. 무대 위에서는 과감하고 무례한 퍼포먼스로 보수층을 농락했고,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1984년에 있었던 MTV 뮤직 어워드 시상식에서 마돈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동명의 타이틀곡 'Like a Virgin(순수한 처녀처럼)'을 부르면서 무대에서 땡구는 과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보수층에 대한 반항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해낸 것이다. 후에 이 퍼포먼스는 브리트니 스피어스(Britney Spears), 크리스티나 아길레라(Christina Aguilera) 등의 가수들에 의해 재현되기도 했다.

물론 마돈나가 보수층에 대한 반항적 메시지만으로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낸 것은 아니었다. 앨범 자체의 음악적 역량 역시 성공의 중요한 요소였다. 앨범에 수록된 대부분의 곡은 나일 로저스(Nile Rogers)가 창조해낸 발랄한 댄스 멜로디와 마돈나의 육감적인 보이스가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다. 'Material Girl(물질적인 여자)'에서는 낮낮이 없이 이어지는 남자의 목소리를 가미시켜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현대의 모습을 강조하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물론 아직도 마돈나의 음악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멜로디의 중독성과 뮤직비디오의 시각적 효과가 너무 상업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그녀의 음악이 대중음악의 영원한 명반 중 하나로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배척하는 한편 남성 우월주의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었다. 마돈나의 눈에 이런 것들은 파괴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그는 대중음악이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 음식傳

### 겨울음식이 여름음식이 된 사연 '냉면'



삭삭 소리가 나는 얼음, 강렬한 맛의 인스턴트 육수, 질긴 면발. 여름이면 찾게 되는 냉면의 모습이다.

하지만, 본래 전통적으로 만들어 먹었던 냉면은 특 쏘는 김치 국물을 사용했고 면도 질기지 않았다. 게다가 냉면은 본래 여름에 먹는 음식이 아니라 겨울에 먹는 음식이었다.

이런 냉면 문화는 특히 평안도나 황해도 같은 북쪽에서 발달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겨울에 국수를 먹기 위해 김장을 할 때 국물의 양을 늘리기도 했다. 이들에게 김치 국물에 말아먹는 국수는 겨울을 기다리는 맛있는 이유였다.

현재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냉면의 모습은 모두 근대화를 통해 변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냉면의 모습이 바뀌는데 첫 발을 내딛은 것은 바로 제빙기술이었다.

1920년대 인공 얼음을 만들어내는 제빙기술이 발달하면서 냉면은 특유의 시원함을 무기로 우리의 여름 식탁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본래 제빙기술이 발달한 이유는 생선

의 부패를 막는 것이었다. 여기에 먹는 얼음이 착안되면서 냉면 육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당시 서울에만 40개가 넘는 냉면식당이 생겼다는 사실을 보면, 얼음 육수의 시원함이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겨울냉면을 여름에 안락하게 재현하기 위해서는 시원한 육수 외에도 특유의 겨울김치를 넣은 육수의 맛이 중요했다. 이런 김치의 맛은 여름에 담은 동치미나 나박김치가 아니면 낼 수 없는 맛이었다. 하지만 당시의 식당들은 이렇게 시간을 오래 투자하면서 김치를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그 대안으로 뽑힌 것이 바로 화학조미료였다. 일본의 조미료 제조 회사 '아지노모도'는 고기의 담백함과 김치의 특 쏘는 맛을 다 잡을 수 있는 '글루탐산'이라는 첨가물을 사용해 조미료를 제조했다. 이후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편이성을 위해 이 조미료를 이용했다. 이후 냉면을 만드는데 드는 시간이 대폭으로 줄어들면서 전국적으로 냉면가게

가 더욱 양산되었다.

하지만, 냉면의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본래 냉면에 필요한 면을 뽑기 위해서는 재래식 국수틀을 사용해야했다. 일명 '면자기'라고 불렀던 이 국수틀은 장정 한 사람이 국수를 위에 올라가 압력을 가해 면을 뽑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은 힘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못했다. 이에 철공소 주인이었던 김규홍씨가 기계식 국수틀을 개발했다.

이 국수틀을 이용하면 인력도 거의 들지 않을 뿐 아니라, 재질이 철이었기 때문에 훨씬 위생적이었다. 또한 밀가루와 전분을 사용해 면을 뽑으면서 보존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면 자체가 질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냉면은 초기 냉면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현재 냉면은 분식집에서까지 흔히 먹을 수 있는 대중화된 음식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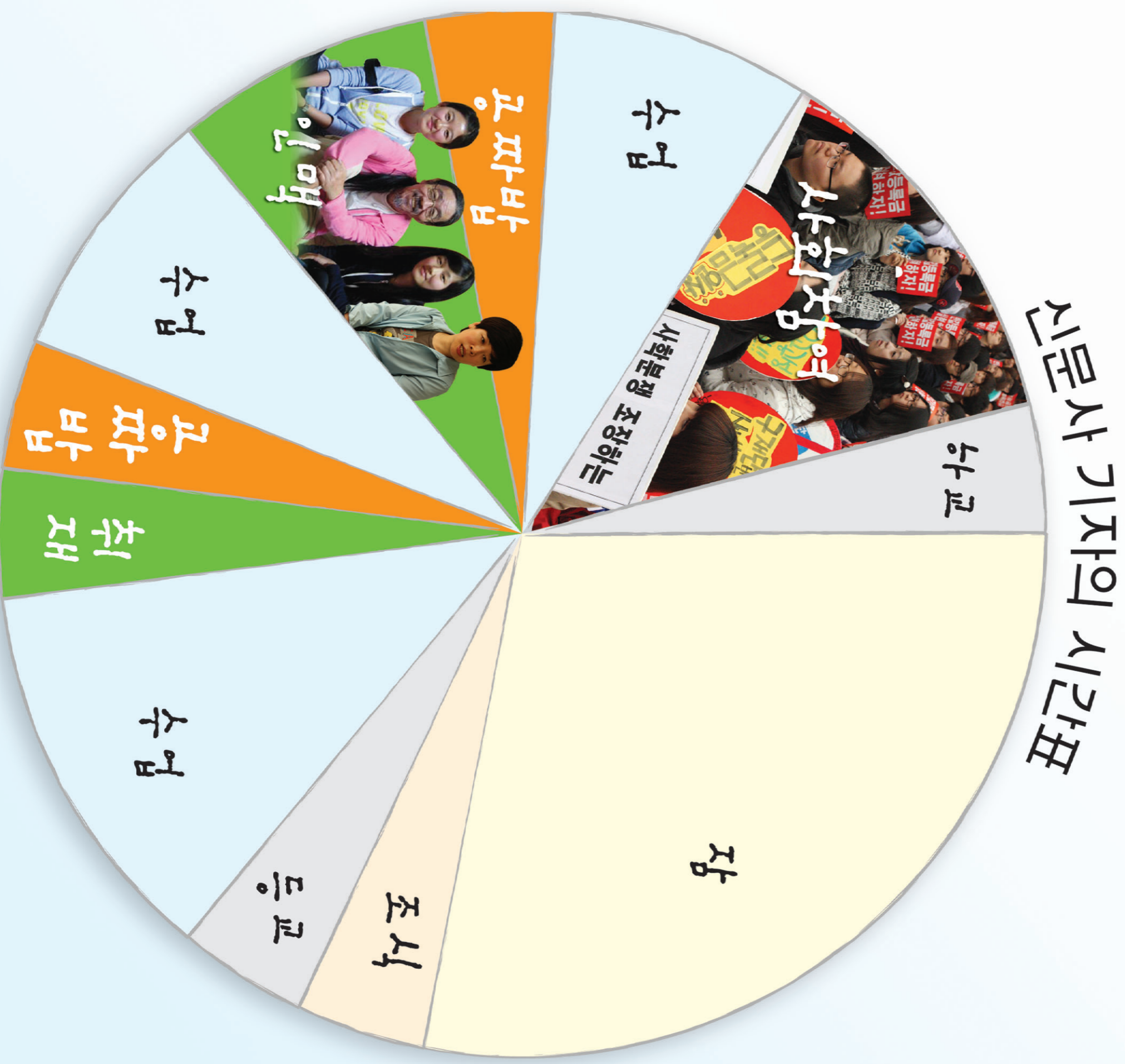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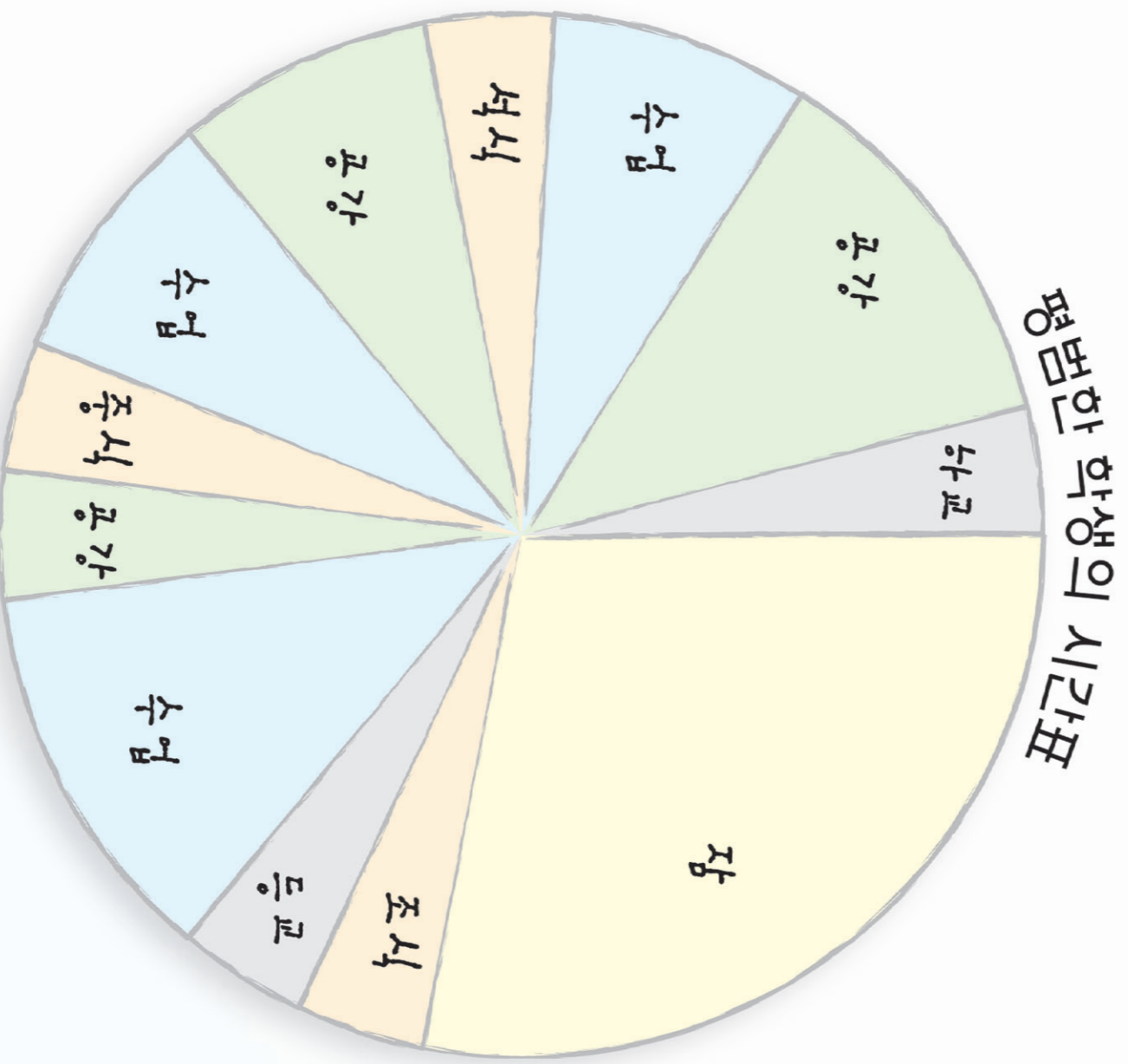
## 사진이야기



김건모의 노래만큼이나 도시의 쓸쓸함이 느껴진다. 즐겨찾는 남산타워 위에서 소주 한병 쥐고 서울의 달과 도시의 야경을 보고있는 기분이라까? 학업의 스트레스와 아르바이트의 압박, 쓸쓸함을 더 가중시키는 것 같다. 나도 대한민국 대학생이다.

정재혁(경제 1)

# 대신은 어떤 대학생일까요? 원하시는거가?



## 한성대신문사 제36기 수습기자 모집

대상 : 우리학교 재학생 1·2학년  
 모집분야 : 취재 기자, 사진 기자  
 혜택 : 기자 활동비와 원고료 지급  
 전형방법 : 전화 연락 후, 개별 면접  
 문의 : 편집국장 010-4534-8682, 신문사 02)760-4186